

누가 크냐

- *날짜 : 3월 1일
- *찬송 : 322장 (1절, 2절)
- *기도 : 구역원 중에서
- *말씀 : 누가복음 9: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यो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기도한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다. 무조건 내가 기도한대로, 그것도 속히 응답을 받는 것이 큰 믿음을 가진 증거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 분이 지으신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생각하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자.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을 자리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어도,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생각하기)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오해가 생긴 적은 없었는지, 자신의 경험을 나눠보자.

▶ '누가 크냐'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이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의 욕망은 커지기를 원하고, 강해지기를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스르라는거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 나보다 더 지위가 높거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을 내 곁에 세우고 싶은데, 어린아이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을 곁에 두라신다.

(생각하기) 왜 높아지려하고 왜 강해지려하고, 왜 부해지려하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힘이되기 위험인가?

▶ 3.1 독립운동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독립운동이 체계화, 조직화, 활성화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3.1 운동으로 민중의 민족의식과 정치의식이 고취되어, 독립 국가의 목표가 단순한 왕조의 회복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바뀌어 지게 되었다. 더욱이 평화와 비폭력을 내세웠던 3.1 독립운동은 같은 해 중국에서 일어난 반일 애국 5.4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집트의 반영국 자주운동,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민족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3.1 독립운동은 우리나라 드라마와 음악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기 거의 한 세기 전에 해외에 영향을 미친 최초의 한류였다.

(생각하기) 3.1 독립운동이, 2026년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찬송: 322장 (3절)

*합심기도

1. '누가 크냐'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마음을 모으게 해 주시길
2.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더해 갈 수 있도록..
3. 조수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4. 서로 밀가지로 섬기며 격려함으로, 구역모임이 따뜻한 가족 같은 모임이 되도록..

*주님의기도

(작성: 이성실)